

침뜸역사신문

조선의 침뜸을 으뜸으로 만든 침의(鍼醫) 허임(許任)의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맞아 침뜸역사를 신문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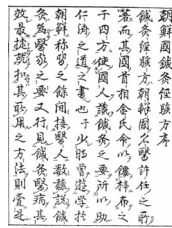
(사)허임기념사업회 2009년 7월 3일



각계 축하 2~3면
“우리의 침뜸 지평을 넓히자”
세미나 요지 4면



침구경험방 출간 5면
이경석 인터뷰 6면
이현세 침뜸역사 만화 8면



일본·중국에 침뜸 ‘한류’ 11면
청나라, 조선 침구서 표절 12면
낮은 곳신의’ 조광일 13면

“조선의 침뜸을 세계 제일로!”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식, 충남 공주 집필지에서 열려

침의(鍼醫) 허임(許任)의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식이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집필지인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에서 개최됐다.

(사)허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심대평 국회의원과 이준원 공주시장, 시 및 도 의원 등 각계인사와 허임기념사업회 임원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침뜸역사 지킴이 200여 명 및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침뜸역사 지킴이 일동’의 명의로 세워진 기념석은 높이 5m, 폭 2m 정도로 앞면에는 침의 허임 침구경험방 집필지’라고 적혀 있다. 뒷면에는 허임과 침구경험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조들이 가꾸어 온 소중한 생명건강문화가 아름답게 발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뜸역사 지킴이”들의 정성을 모아 지금 이곳에 기념석을 세운다.”라는 취지문이 새겨져 있다.

이날 기념식 제막에 이어 웅진교육박물관 운동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기념사와 축하, 격려사가 이어졌고, 민요(공주민요연구회)와 대금연주(공주연정국악원), 부채산조(최선무용단) 등의 축하공연도 곁들여



6월20일 충남 공주‘침구경험방 집필지 기념석’ 제막 현장.

<사진제공 대전일보>

졌다.

이준원 시장은 축하를 통해 “지역에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한국의 전통의학 도시, 웰빙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대평 의원은 “병들고 허약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의술을 펼쳤던 허임 선생의 뜻이 오늘에 이어져 단비

로 농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다”며 “오늘은 공주시가 역사·문화·교육도시를 넘어 전통의학의 중심 도시임을 알리는 뜻 깊은 날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침구경험방 3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침뜸역사 지킴이 신청자들이 6월30일 현재 310여명이 넘었다. 365명이 채워지면 기념석 옆 지킴이석에 이름을 새겨 넣을 예정이다.

백성들 피고름 닦은 ‘침의의 역사’ 조명

기념세미나서 발표“허임방, 실용적 의서 현재도 큰 의의”

조선시대 백성들의 피고름을 닦아 준 침의의 역사가 재조명 됐다.

지난 6월18일 (사)허임기념사업회가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기념세미나에서 이규근 박사(중원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조선시대 침의의 형성과 지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조선시대 침의는 침과 뜸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침구의(鍼灸醫)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과적 수술, 즉 대침(大鍼)으로 굵은 종기를 찌

고 고름을 뽑아내는 치종(治腫)이나 단방(單方)의 고약(膏藥) 등 약으로 외과적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침의들은 피와 고름을 보는 수술법 등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내의(內醫)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조선시대 질병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왕실은 물론, 민간의 질병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창 박사(경

운대 교수)는 조선시대 대표적 침의 허임이 쓴 침구경험방의 특징과 국내외 간행실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면서 “침구경험방은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이어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았고, 침구의학의 이론방면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이어서 전세일 박사(CHA의과학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원장)는 “침술의학의 장점과 과학적 연구방향”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오랜 임상경험의 축적이 있는 침술의학은 일반적으로 시술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또 저렴하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며 “약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생리적 인내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시설

침의제도 정착에 각계 힘 모을때

침뜸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었고, 그 전문적 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오해로 침구의(鍼灸醫)가 국가의료기관 내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정적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침의 선발을 별도 시험으로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조선 침구술과 침의들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침구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50여년 전 세종대왕시절 전의감 제조 황자후가 “병을 속히 고치는 데는 침뜸만한 것이 없다”며 현자리를 표시한 동인형을 만들고, 침구를 전문으로 익힐 사람을 선발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침구전문 교육이 실시됐고, 1440년(세종 20년)부터 매년 침구전문생 3인을 채용하여 삼의사에 배치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얼마 못가서 폐지되고, 단종이 즉위한 1452년에 침구전문법이 다시 부활하지만 세조때 다시 폐지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것이 성종 3년 1472년에 침구의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침구전문법이 별설되고, 삼의사에 다시 침구의가 배치됐다. 이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 이번에 마침내 경국대전에 확고히 성문화된 것이다.

경국대전의 명문화는 앞으로 침의가 제도권의 전문 의료인으로 자리 잡게 하고, 침뜸의 전문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침구의(鍼灸醫)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침의(鍼醫)로 불리고 있다. 이들 침의들은 주로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부항을 부치는 등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특히 각종 풍기나 부스럼 등 외과치료도 침의들의 중요한 몫이었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침의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오래전에 침구사 제도가 마련되어 전문과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선만이 침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전문업종으로 제도화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침술의 명의들이 재야에서 널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명확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의는 오래 전부터 백성들 생활 곳곳에서 아픈 이들을 보듬고 치료하면서 한자의 겹을 지켰고, 전통의학인 침뜸의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침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술을 익히고,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후 제도적 후속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선의 침뜸이 세계의 으뜸 침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침구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조정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계가 힘을 모아줄 때이다.